

JEFF BEZOS AND THE FUEL



JEFF BEZOS와 연료

SEMANTIC REALITY 2026 · SHAREHOLDERS · 09

나의 첫 성공: Bezos에게 요트 기름값을 대 준 것.

한때 단순한 소통 수단이던 전화는 점점 나누고, 이야기하고, 문자를 보내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휴대 전화가 유선 전화를 앞질렀다. 모두가 말을 해야 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려고?

남편이 아직 집에 있는지, 언제 나갈지. 아내가 애인을 들일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를. 아니면 주말마다 들르던 그 흔한 집안 친구를.

그러자 벨 소리는 늘,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하려던 사람에게 겁을 주는 신호가 되었다. 그리고 소리 없는 메시지가 등장했다.

WhatsApp, Telegram, Signal, Messenger, Direct, Viber, WeChat, Skype. 메시지와 사진과 동영상, 온갖 상황을 주고받기 위해. 그리고 오랫동안 이것은 사법 당국이 사건을 세우고 죄인이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때, 나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 경험을 나누고, 그들을 미소 짓게 하고 생각하게 하려고. 다만 나는 Amazon이 아니었고, Pornhub도 아니었다. 그리고 실패는 예고된 성공의 첫 번째 진짜 시작일 뿐이었다.

그러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폴리의 한 여자가 이야기 300편의 아카이브를 모았다. 어느 날 전화로 그녀가 말했다. "나폴리에 있는 출판사 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요. 책을 만들라고 그 이야기들을 줄 거예요. 그다음은 두고 보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내 대답은 이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늘 모든 걸 반반 나눌 겁니다."

그녀는 엄마가 막내를 보듯 나를 보았다. 그저 마지막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를. 그러나 관심에 관한 한 막내가 먼저라는 것은 엄마들만 안다.

석 달 뒤, 그녀는 출판사가 기획을 거절했다고 전화로 알려 왔다. 그는 반복을 찾아냈고, 웹에서 본 정보를 짚어 냈다. 몇 마디로, 행간에서, 그는 내가 베끼는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지금의 시장에 맞지 않는, 너무 앞서 나간 종류의 문학이라 자기는 출판하지 않겠다며 변명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내 이야기 300편이 든 그녀의 파일 사본을 달라고 했다. 그녀는 심한 전력 서지로 하드 디스크가 타 버려서 더는 사본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15일 만에 모든 이야기를 다시 썼다. 언제나 나를 남다르게 해 준 그 인내심과, 시작할 힘을 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거절은 더 잘하고 더 많이 하라는 승진일 뿐이다.

나는 이탈리아의 한 출판사를 찾아갔고, 그곳이 나의 첫 책을 만들어 퍼냈다. 경험이 없던 나는 나보다 오래 글을 써 온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고, 1,500유로를 냈으며, 계약서에 적힌 증정본 50부를 받았다. 책은 모든 출판 유통망으로 나갔고 오늘날에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인세를 받지 못했다.

그때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산적들이 역마차에서 내려와, 아무도 눈치채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는 스스로를 출판인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오직 내가 직접 상대한 출판사들에 대해서만,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말하고 있다.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모든 출판사”라고 썼다면 첫 소송들이 날아왔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내 게임이 아니라 그들의 게임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하하하하.

나는 그것이 이탈리아만의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갔다. 그곳에서 150쪽에서 210쪽에 이르는 책 14권을 펴냈고, 그 책들은 Amazon을 포함해 오늘날에도 팔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인세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내가 배포 허가를 철회한 뒤에도 책들은 계속 판매되었다.

그러나 칼라브리아 사람이라 고집이 센 나는 더 많은 확인을 찾았고, 내가 직접 상대한 다른 출판사들도 모두 같은 방식을 따랐다. 책을 받아 펴내고 돈을 걷고, 나에게 인세를 주지 않았으며, 독립 저자로서의 내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판물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AMAZON에 이르렀다. 출판계의 보스.

여기서 게임은 거의 곧바로 종점에 다다랐다. 7일 동안 40권을 펴낸 뒤 41번째 책이 출간되었고, 겨우 1시간 뒤 이메일 10통이 도착했다. Amazon은 내가 자기들의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비난했고, 내 계정을 막았으며, 내가 펴낸 책들에 대해 인세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요컨대 내 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들의 알고리즘을 폭파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판매를 지어내지 않았다. 이름과 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 친구 12명이, 바로 내가 판매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책을 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겪고 기록한 대로, 계정이 막힌 뒤에도 내 책들은 구매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60일 동안 더 팔렸고, 그에 해당하는 인세는 나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나의 첫 성공: Bezos에게 요트 기름값을 대준 것.

그다음, 앞서 일어난 일을 확인하려고 나는 유럽의 출판사 STREETLIB으로 시험을 해 보았다. 그곳은 30일 동안 여섯 개 언어로 전자책 100권을 펴냈다. 책들은 곧바로 유럽의 모든 시장과 대학에 닿았고, 50일도 안 되어 13.90유로에 1,365부가 넘게 팔렸다.

내가 더 많이 펴내기 시작하자, 그들은 처음 100권의 ISBN 비용은 자기들이 내지만 그다음부터는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 제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판매처로 유통을 넓히고 싶은지도 물었다.

그들은 ISBN이 저자를 보호하는 데 쓰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SBN은 출판물의 한 판을 식별할 뿐,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나에게 그것을 저자 보호라고 내세우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내가 겪은 바로는, ISBN 관리와 출판을 둘러싸고 지어진 사업은 결국 내가 아니라 출판사의 이익에 봉사했다.

나는 공인 전자우편을 보내 모든 책을 시장에서 내려 달라고 요청했고, 이미 벌어들인 인세와 앞으로 쌓일 인세까지 모든 돈을 가져도 좋으니 그것으로 사업에 든든한 자금을 수혈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하기로 했다. 처음의 연습용 웹사이트를 거쳐 지금의 웹사이트가 태어났다. 여전히 독립 저자로서, 후원자도 보호도 없이.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았지만, 나는 겨우 60세였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다 ALPHABET을 만났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전혀 몰랐다. 인도 사람이 운영하는 문맹자 학교인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다. 내 여정에서 배우고 싶다면 인간의 십진법(0-1-2-3-4-5-6-7-8-9)이 아니라 이진 코드(0-1)를 써야 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그 반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책 안에는 서사, 이야기, 사건, 구성, 편집, 표지, 번역이 있다. 그리고 그다음은?

웹은, 만약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이 산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에게 가치를 주고 자기 시간에 맞춰 당신을 색인한다. 그러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웹은 누구인가?

BING, GOOGLE, YANDEX, YAHOO.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아침 식사를 위해 우유를 데우는 모든 집이 바로 당신을 읽는 집이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웃 이야기를 늘어놓는 소셜 미디어로 만족해야 한다. 그것이 뉴스가 된다.

그다음에 팔고 싶다면, 돈을 걷기 전에 먼저 내야 한다. 상거래의 반대처럼 보이지만, 그저 이진 코드일 뿐이다.

광고 캠페인, 홍보, 소셜 미디어, 컨설턴트, 대행사로 시작하고, 당신이 만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눈다. 결국 무엇이 당신 주머니에 들어올지 확실히 알지도 못한 채.

카지노에 가는 것과 같다. 얼마를 들고 들어가는지는 알지만, 얼마를 들고 나올지는 결코 알 수 없고, 카지노 주인은 절대 지지 않는다.

팔지 않고 당신의 작품을 거저 준다면, 당신은 문제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오직 당신이 만들어 내는 작품의 양,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언제 만드는지로만 잴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의 가치, 당신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그 가치는 잊힌다. 콘텐츠의 편집 품질이 10점 만점에 9점 일 때조차.

당신은 형식에 맞지 않는다. 신발 가게에 들어가 99 사이즈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웹과 출판 산업 전체는 기껏해야 50 사이즈까지밖에 없고, 그것도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당신은 조언을 구한다. 당신은 혼자다. 가족은 이해하지 못하니 적이고, 친구들은 선의로 위장한 화려한 질투일 뿐이며, 적들은 사실 말없이 당신을 감탄하며 지켜보는 관객이다.

그러다 어리석게도 당신은 AI가 하는 말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당신은 지적이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그들의 패

턴이 일치하는지 보려고 열 개를 돌려 본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왜 계속 가는지 말해 주는 날도 있고, 당신은 계속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날도 있다. 모두가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아무도 체제에 맞서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다면, 전쟁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행동인 전쟁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다시 읽어 보라. 내 말대로라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정말로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불가능했던 적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여자들은 언제나 그것을 알아본다. 그리고 오직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Ferdinando Frega
BLADEFREGA · Nando the Scribe